

국제수산 월간동향

2026. 2.



한국원양산업협회

KOFCC 해외수산협력센터

목 차

1. 트럼프, 북동부 해저협곡 · 해산 상업어업 재개 허용..... 3
2. 기후변화로 대서양 참다랑어 북상, AZI 연구 주장..... 4
3. ILO, 아시아 수산 · 어업 분야 노동권 문제 지속 확인..... 5
4. 남반구 해양 질서를 재편하고 있는 오징어 어업..... 6

- 트럼프 대통령은 북동부 해저협곡·해산 해양국립기념구역의 상업어업 금지를 다시 해제하며, 지난 10년간 네 차례 변경된 해당 구역의 어업 지위를 또다시 뒤집었음
 - 2016년 오바마 행정부가 기념구역으로 지정하며 어업을 제한한 이후, 트럼프·바이든 행정부를 거치며 어업 허용 여부가 네 차례 변경됐음
 - 트럼프는 2월 6일 대통령 포고령을 통해 상업어업을 재개하며 '미국 우선 어업정책'을 강조했다음
 - 어업계는 매그너슨-스티븐스법에 따른 엄격한 지속가능성 기준이 적용되는 만큼, 어업 재개가 보전을 훼손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음
 - 환경단체는 해당 구역이 대서양의 핵심 생물다양성 지역이라며 재개 조치가 생태계에 위험을 초래한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음

※ 출처: SeafoodSource¹⁾

1)<https://www.seafoodsource.com/news/environment-sustainability/trump-reopens-northeast-canyons-and-seamounts-to-fishing> ('26년 2월 20일 검색)

- 스페인 해양기술기관 AZTI는 기후변화로 해수 온도가 상승하면서 대서양 참다랑어가 북유럽·그린란드 인근으로 북상하고, 산란·먹이·어획 지역이 크게 재편될 것이라고 밝혔음
 - 기후 시나리오 분석 결과, 참다랑어는 더 시원한 해역을 찾아 점진적으로 북쪽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음
 - 주요 산란장인 지중해와 멕시코만은 온실가스 최악 시나리오에서 각각 최대 27%, 70%까지 서식 적합성이 감소할 수 있음
 - 정어리·고등어·오징어 등 주요 먹이종도 고위도로 이동하며, 일부 북방 해역이 '기후 피난처'로 부상할 수 있음
 - 연구진은 변화하는 분포를 반영한 유연하고 기후적응형 수산관리 체계 도입이 지속가능성 확보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 출처: SeafoodSource²⁾

²⁾<https://www.seafoodsource.com/news/environment-sustainability/atlantic-bluefin-moving-north-due-to-climate-change-seeking-more-favorable-ecosystems-azti-study-claims> ('26년 2월 20일 검색)

- ILO 보고서 「Towards Fair Seas」에 따르면 아시아 수산·어업 분야 이주노동자의 약 13%가 강제노동 상황에 놓여 있으며, 특히 어선 어업 분야에서 비율(20%)이 높게 나타남
 - 중국 67%, 대만 41%, 태국 15%, 일본 8%, 한국 7%로 조사되었으며, 중국과 대만은 상업적 어선 종사 비율이 높아 강제노동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됨
 - 어업 방식별 강제노동 발생 비율은 연승어업 24%, 선망어업 17%, 트롤어업 15%로 나타남
 - 6개월 이상 장기 출어 어선의 경우 이주노동자 3분의 1 이상이 강제노동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됨
 - 높은 취업 알선 비용, 임금 보호 미흡, 장시간 노동, 산업재해 위험, 노동조합 결성 제한 등 문제가 확인되었으며, 보고서는 국제 노동 기준 비준 및 이행 강화와 공급망 책임성 확보를 권고하고 있음

※ 출처: SeafoodSource³⁾

3)<https://www.seafoodsource.com/news/supply-trade/international-labour-organization-survey-finds-substantial-challenges-for-migrant-workers-in-asian-seafood-fishing-sectors>

■ 미국의 IUU 정책과 아르헨티나 대통령 하비에르 밀레이의 영국과의 분쟁 종료 비밀 계획이 약 400척 규모의 중국 선단에 미치는 영향

- 남미 지역의 해양 환경은 외교, 천연자원, 지정학적 경쟁이 결합된 전략적 전환기를 맞고 있음. 이 과정의 중심에는 세 가지 축이 있음: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불법어업(IUU) 대응 정책과 중국 관련 입장
 -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의 영국과의 분쟁을 최종 종료하려는 결정
 - 남대서양과 남태평양에서 활동하는 중국 오징어 선단
- 핵심 자원은 오징어임. 대서양의 *Illex argentinus*와 태평양의 *Dosidicus gigas*. 이들은 남반구에서 가장 중요한 어업의 대상이 되는 회유성 어종으로, 남미 배타적경제수역(EEZ) 인접 국제수역에 선단 활동이 집중됨.

■ 전략적 기반: 미국의 IUU 어업 대응 원칙

- 2020년, 트럼프 행정부는 IUU 어업을 경제 및 국가 안보 우선 과제로 격상했음. 2020년 5월 7일,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 13921호를 서명하여 미국 어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외국의 과도어획 방지를 추진하였음. 동년 CARES 법안을 통해 3억 달러가 배정되어 미국의 감시 및 집행 역량을 강화하였음.
- 미국 해안경비대 보고서 "Strategic Outlook on IUU Fishing"는 EEZ 경계 인근 대형 선단 활동이 해양 안보에 전략적 도전이라는 점을 경고하며 이 접근법을 강화하였음
- 제75차 유엔총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제3국 인근 수역에서 과도한 어획을 하고 있으며, 에콰도르 EEZ 근처에서 약 300척이 조업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일부 선박의 추적 시스템 비활성화 의혹을 언급하였음.
- 2025년 4월, 행정명령 14276호로 IUU 대응에 대한 미국 정책의 지속성을 재확인하였음. 이는 남대서양에서의 전략적 활동에 관한 워싱턴의 기반이 됨.

■ 중국 원양 오징어 선단 운영 방식

- 중국 원양 선단은 성수기 동안 대서양과 태평양을 오가며, 약 400척의 오징어 채낚기 선박과 일부 트롤선, 물류 지원 선박으로 추정됨.
- 계절별 동향
 - 남대서양: 아르헨티나 EEZ 200해리 바로 바깥의 소위 201마일 지점에서 *Illex argentinus*를 어획
 - 남태평양: 페루, 칠레, 에콰도르 EEZ 밖에서 *Dosidicus gigas*를 어획
- 작업은 물류 허브를 통해 재보급, 유지보수, 선원 교체가 필요함. 몬테비데오(Montevideo)는 대서양 활동의 핵심 항구 역할을 수행함. 국제수역에서 조업이 이루어지지만 EEZ와의 근접성으로 인해 활동은 점점 정치적, 전략적 사안이 되고 있음.

■ 새로운 중심축: 밀레이의 영국 분쟁 종료 결정

- 새로운 시나리오의 핵심 요소는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의 전략임. 남대서양과 관련한 영국과의 분쟁을 최종적으로 종료하겠다는 정치적 결정을 반복적으로 재확인하고 있음.
- 정치·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아르헨티나 정부는 미국의 정치적 지원을 받으며 지역 내 새로운 이해관계 프레임 구축을 목표로 런던과 비밀 협상을 진행 중임.
- 논의에는 다음이 포함될 것:
 - 오징어 자원에 대한 과학적 조율
 - 회유 어종 보호 메커니즘
 - 어업 정보 교환
 - 포클랜드 제도(Islas Malvinas) 인접 지역의 운영 안정성
- 협상 과정은 정치적 민감성 때문에 비밀이 유지 중이며, 잠재적 합의의 법적 범위는 공개되지 않았음.

- 이 과정의 전략적 구성 요소에는 국제 NGO 두 곳과의 기술적 협력임. 하나는 미국 기반이고 하나는 영국 기반임. 미국 기반 NGO는 해양 보전·환경 지속 가능성 전문이고, 영국 기반 NGO는 어업 관행 및 해상 공급망 인권 기준 전문임
- 미국 NGO와 영국 NGO의 참여는 기술적 및 양자적 측면을 강화하고, 협력 메커니즘에 국제 과학적 근거를 제공함.

■ 밀레이 대통령 하의 아르헨티나 전략적 검토

- 취임 후 밀레이 대통령은 아르헨티나의 어업 정책 및 남대서양에서의 지정학적 위치 재검토를 추진하고 있음.
- 공식적 어업 구조 재편은 발표되지 않았지만, 규제 감독 강화 및 해양 정책을 새 정부의 경제·외교 우선순위와 정렬하려는 의도로 보임.
- 2025년 9월 주아르헨티나 미국 대사로 피터 라멜라스(Peter Lamelas)를 임명한 것은 워싱턴의 지역 해양 시나리오 관심을 반영하는 것임. 대사는 어업, 항만 인프라, 해양 물류 등 전략적 분야에서의 외국인 투자, 감시 및 국제 협정 관련 지방 정부와의 대화 유지 의사를 표현하였음.

■ 지방 차원 및 외국 자본

- 산타크루즈 주에서 클라우디오 비달(Claudio Vidal) 주지사는 원양 어업 관련 중국 Fuzhou Hongdong Pelagic Fishery와 2억 달러 투자 계약을 체결하였음. 추부트 주에서 이그나시오 토레스(Ignacio Torres) 주지사는 국제수역 원양 선단 관련 항만 서비스 프로그램을 지원하였음.
- 최근 두 주지사는 “중국과의 계약” 공개를 중단하며, 중앙정부 및 미국 대사관과 행동을 정렬하였음. 티에라델푸에고(Tierra del Fuego) 다목적 개발 프로젝트(1.25억 달러, Shaanxi Chemical Group 관련)는 현재 진척이 없고, 국내 자본 기반 Mirgor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는바, 남부 항만 투자 전략 방향의 전환을 반영한 것임.

■ 남대서양·남태평양 영향

- 아르헨티나와 영국 간 협력 체계가 미국의 지원과 양국 NGO의 기술적 뒷받침 하에 공고화될 경우, 이른바 '201마일' 해역의 운영 환경은 다음과 같은 변화를 겪을 수 있음.
 - 과학 데이터 교환의 확대
 - 회유성 자원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 새로운 지속가능성 기준의 도입
- 한편, 남태평양에서는 페루의 항만 통제 강화와 칠레의 해양 정책 재검토 가능성이 보다 규제된 지역 환경으로의 전환을 시사하고 있음.

■ 오징어 어장의 전환점 형성

- 다음 요인들의 결합으로 남반구 주요 오징어 어장에 전환점이 형성되고 있음:
 - 특히 중국에 초점을 둔 미국 IUU 대응 정책
 - 부에노스아이레스와 워싱턴의 전략적 정렬
 - 아르헨티나와 영국 간 비밀 협상
 - 산티아고와 워싱턴 간 전략적 정렬 가능성
- 중국 선단은 남미 국제수역에서 활동하지만, 간접 규제, 과학 협력 및 외교가 남대서양과 남태평양의 지정학적 균형을 재정 의하고 있음. 그 중심에 있는 것은 바로 오징어임.

출처: www.seafood.media⁴⁾

4) <https://www.seafood.media/fis/worldnews/worldnews.asp?l=e&id=137240&ndb=1> (2월 16일 기사)